

# 《太平廣記》韓國 傳來時期의 再考察\*

金相圭\*\*

---

◁ 목 차 ▷

---

- I. 머리말
  - II. 《太平廣記》韓國 傳來時期에 대한 기존 학설
    - 1. 1100년-1200년 간 전래설
    - 2. 1095년 이전 전래설
    - 3. 1080년 이전 전래설
  - III. 기존 학설에 대한 재고찰
  - IV. 맺음말
- 

## I. 머리말

《太平廣記》는 北宋 李昉 등<sup>1)</sup>이 太宗의 勅命을 받고 太平興國 3年(978)에 編

---

\* 本稿는 2013年 6月 22日 韓國交通大學校 東ASIA研究所가 개최한“文獻研究의 國際交流와 協力”國際交流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 후 수정 보완한 것임.

\*\* 韓國交通大學校 中國語科 講師.

- 1) 그간 국내외 학자들은 〈太平廣記表〉에 기재된 명단에 의거하여 《태평광기》 편찬자를 총 13명으로 소개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태평광기》 편찬에 참여한 인원수는 총 17명으로 편찬과정 중, 일부 인원이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문헌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태평광기표〉에는 呂文仲, 吳淑, 陳鄂, 趙隣幾, 董淳, 王克貞, 張洎, 宋白, 徐鉉, 湯悅, 李穆, 扈蒙, 李昉 등 총 13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宋 王應麟《玉海》卷54에 인용된《宋會要》에는 趙隣幾, 董淳, 王克正(貞)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태평광기표〉에 보이지 않는 李克勤, 徐用賓, 舒雅, 阮思道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즉, 趙隣幾, 董淳, 王克正(貞) 3명은 편찬과정 중에 참여한 인물들이며, 李克勤, 徐用賓, 舒雅, 阮思道 4명은 편찬 초기에 참여하였으나 도중에 물러나 아쉽게도 〈태평광기표〉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내용이 《宋會要》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王應麟《玉海》(卷54): 「《宋會要》: …… 唯克勤, 用賓, 思道改他官, 續命太子中允王克正、董淳、直史館趙隣幾預焉。」(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8), 1030쪽. 그러므로 “《태평광기》 편찬자 인원수”를 언급할 때, 총 17명이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纂한 古代小說總集이다. 《태평광기》는 漢代부터 宋初에 이르는 近 500종의 방대한 문헌에서 小說, 筆記, 野史 등에 속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500卷(目錄 10권은 미포함)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後世에서 가히 “小說家의 淵海”라고 불릴 만한 巨大 著作이다. 《태평광기》는 중국 후세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韓國으로 傳來된 이후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 또한 상당하다. 특히,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태평광기》 縮約本인 《太平廣記詳節》과 《태평광기》 일부 작품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太平廣記諺解本》이 편찬되었다는 점은 《태평광기》가 국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實例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평광기》의 한국 전래시기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자들 간에 異見 차이가 다소 존재하였다. 현재는 宋 王闢之의 《澠水燕談錄》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宋 神宗 元豐 3년 즉, 高麗 文宗 34년(1080) 이전에 《태평광기》가 한국으로 전래되었다는 주장이 定說이 되어 국내외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이를 따르고 있다. 程毅中선생 또한 「만약 그(박인량)가 《태평광기》에서 보았다면..」<sup>2)</sup>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평광기》가 국외로 전래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반대로 “만약 박인량이 《태평광기》에서 보지 않았다면”이라는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태평광기》의 한국 전래시기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현존하는 역사 문헌 기록과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태평광기》 한국 전래시기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재고찰함으로써 관련연구에 一助하고자 한다.

## II. 《太平廣記》韓國 傳來時期的 기존 견해

上記하였듯이 《태평광기》의 한국 전래시기에 대한 정확한 문헌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학자들은 그간 여러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그들이 주장

할 수 있었다.

2) 程毅中 《太平廣記》: 「如果他是從《太平廣記》裏看到的, 那麼《廣記》已經流傳到國外, 更可以證明它的刻本也不至於太少。」(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99), 15쪽.

하는 전래 시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 1. 1100년에서 1200년 간 전래설

한국학계는 일찍이 《태평광기》가 한국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인지하여 《태평광기》의 한국 전래시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국내학자들은 고려 宣宗 7년(1090)년과 肅宗 6년(1101)에 《文苑英華》와 《太平御覽》이 각각 한국으로 전래되었다는 《高麗史》의 기록을 《태평광기》 전래의 上限시기로 삼았고, 高麗 翰林儒者의 《翰林別曲》 편찬시기를 그의 下限시기로 삼아 《태평광기》가 약 1100년에서 1200년경에 한국으로 전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상한시기와 관련된 역사 기록은 다음과 같다.

宋은 《文苑英華》詩文集을 하사하였다. (宋賜《文苑英華》集.)<sup>4)</sup>

丙申일에 王叔와 吳延寵이 송에서 돌아올 때, 황제가 《太平御覽》 1,000권을 하사하였다. (丙申, 王叔、吳延寵還自宋, 帝賜王《太平御覽》一千卷.)<sup>5)</sup>

北宋은 1090년과 1101년에 각각 《문원영화》와 《태평어람》을 고려에게 賜하였다. 詩文總集 《문원영화》와 百科全書類 《태평어람》은 小說總集 《태평광기》, 史書類 《冊府元龜》와 함께 “宋四大書”라고 불린다. 한국학계에서는 “송사대서”에 속하는 《태평어람》과 《문원영화》 두 書籍이 한국으로 유입된 시기인 1100년경을 《태평광기》 한국 전래 상한시기로 간주하였다. 하한시기와 관련된 역사 기록은 다음과 같다.

유원순의 문장<sup>유원순</sup>, 이인로의 시<sup>이인로</sup>, 이공로의 사록<sup>이공로</sup>변려문<sup>이공로</sup>, 이정언의<sup>이정언</sup>규보와

3) 李在秀 〈韓國小說 發達 段階에 있어서 中國小說의 影響〉; 《慶北大學校論文集》 1956년 제1집, 54-55쪽 참조; 金一根 〈太平廣記 諺解〉; 《國語國文學會》 1957년 제17호, 105-106쪽 참조;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太平廣記〉의 影響을 中心으로》 (서울, 一志社, 1976), 39-41쪽 참조;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在韓國之傳播》 (上海, 學林出版社, 1998), 243-245쪽 참조.

4) 金宗瑞 鄭麟趾 等 《高麗史》 권10 〈宣宗〉 (서울, 太學社, 1972), 제1책 199쪽.

5) 앞의 책, 권11 〈肅宗〉, 제2책 16쪽.

진한림<sup>진화</sup>의 雙韻으로 신속히 쓴 글, 유충기의 대책문<sup>유충기</sup>, 민광균의 경서해석<sup>민광</sup> 균, 김양경의 시와 부<sup>김양경</sup>. 아! 과거시험장의 광경이 어떠합니까? 금학사<sup>금의</sup>의 옥순처럼 많은 제자 云云우리말의 모든 노래 가사 중에 우리말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이 하였다. 《唐漢書》, 《莊老子》, 《韓柳文集》, 《李杜集》, 《蘭臺集》, 《白樂天集》, 《毛詩》, 《尚書》, 《周易》, 《春秋》, 《周戴禮記》云云俚語, 《太平廣記》사백여권, 아! 두루 구경하는 광경이 어떠합니까? ..... 이 곡은 고종 때 한림제유들이 만들었다.(元淳文俞元淳、仁老詩李仁老、公老四六李公老、李正言李奎報、陳翰林陳湊、雙韻走筆、冲基對策劉冲基、光鈞經義閔光鈞、良鏡詩賦金良鏡、偉試場景何如? 琴學士琴儀、玉笋門生云云 俚語 凡歌詞中以俚語不載者做此. 《唐漢書》、《莊老子》、《韓柳文集》、《李杜集》、《蘭臺集》、《白樂天集》、《毛詩》、《尚書》、《周易》、《春秋》、《周戴禮記》云云俚語, 《太平廣記》四百餘卷, 偉歷覽景何如? ..... 此曲高宗時翰林諸儒所作.)<sup>6)</sup>

《한림별곡》은 고려 高宗 3년(1215) 경에 諸儒들이 漢字와 吏讀를 混用하여 만든 歌謠로서 당시 귀족들의 生活相을 內包하고 있다. 그 중, 위와 같이 귀족들에게 환영받던 서적의 이름을 歌詞로 만들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고대 著述 風潮는 분명 經史書類 書籍을 重視하고 小說類 서적은 이와는 달리 輕視 당했으나, 소설류인 《태평광기》를 경사서류 서적들과 한 데 모아 가사로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 《태평광기》가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문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이를 통해 《한림별곡》 편찬 이전 대략 1200년 이전에 《태평광기》가 한국으로 전래되었다고 유추하였다.

《태평광기》는 본래 500권(목록 10권 불포함)이지만, 《한림별곡》에는 “《太平廣記》四百餘卷”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 金長煥, 朴在淵, 李來宗先生은 한림 유생들이 읽은 《태평광기》가 完帙本이 아닌,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落帙本일 수 있다고 추측한 바 있다.<sup>7)</sup>

## 2. 1095년 이전 전래설

《大覺國師外集》은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書翰 및

6) 앞의 책, 권71 〈翰林別曲〉, 제6책 287-290쪽.

7) 金長煥 朴在淵 李來宗 〈太平廣記詳節研究〉: 《中國語文學論集》 2004년 제29호, 415쪽 참조.

讚詩 등을 엮은 책이다. 권5에는 《태평광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변진이 아뢰입니다: 일찍이 급히 안부를 물으신 書信과 함께 보내주신 《圓宗文類》를 받은 지 근 10년이나 되었어도 지금까지 읽어보는 재미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 李綱首가 돌아오는 길에 보내주신 海東 李顥의 《夾注金剛經》 1冊, 《斷疑金剛經》 1冊, 《金剛經集解》 1冊과 《教藏總錄》 2冊, 《唯識論單科》 3冊을 손 씻고 향 피워 두 손으로 받을 때, 심히 황송함이 더했습니다. …… 또한, 듣자하니 海東에 《太平廣記》가 있다고 합니다만, 받아 볼 수 있을런지요? (辯眞啓: “曾奉書馳問, 兼承惠及《圓宗文類》, 將近十年, 於今披味, 未嘗暫忘. …… 李綱首回, 承惠及海東李公顥所□《夾注金剛經》一冊、《斷疑金剛經》一冊、《金剛經集解》一冊, 並《教藏總錄》二冊、《唯識論單科》三冊, 灌手焚香捧授之次, 良增感愧. …… 兼聞海東有《大(太)平廣記》, 可得觀光否?”)<sup>8)</sup>

以上은 宋 僧侶 辯眞이 고려 승려 의천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金程宇선생은 「의천이 송에 가서 求法을 한 때가 1085년이고, 의천이 변진과 왕래하며 서적을 선물한 때가 그 이후가 된다. 의천이 《圓宗文類》을 1083년에 撰하였으니 시간적으로 符合된다. 이를 통해 이 편지는 대략 10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라고 주장하며 《태평광기》의 한국 전래시기를 1095년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 3. 1080년 이전 전래설

《태평광기》가 1080년 이전에 한국으로 전래되었다는 주장은 현재 국내외 학계의 定說이 되고 있다.<sup>10)</sup> 그 근거가 되고 있는 《澠水燕談錄》 권9 《雜錄》의 내용은 다

8) 義天《高麗大覺國師文集》 권5 《大宋沙門辯眞書第二》(蘭州, 甘肅人民出版社, 2007), 124-125쪽.

9) 金程宇 《韓國古籍太平廣記詳節新研》: 「義天入宋求法在1085年, 其與辯眞之交往與贈書在此後, 義天《圓宗文類》成書於1083年, 時間相符, 故此信大體可判爲1095年左右所作.」(《域外漢籍叢考》, 北京, 中華書局, 2007), 70쪽.

10) 黃涇江선생이 《승수연담록》의 내용을 근거로 《태평광기》가 고려 때(11세기 이전) 송나라로부터 들어왔다고 처음 주장하였고, 중국에서는 정의중선생과 趙維國선생 등이 이와 동일한 견해를 주장함으로써 《태평광기》가 1080년 이전에 한국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을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다. 특히, 조유국선생은 박인량이 熙

음과 같다.

元豐年間に 고려 사신 朴寅亮이 明州에 도착하자 象山尉官 張中이 詩를 지어 그에게 보내니, 박인량이 답한 시의 序文에 “꽃다운 얼굴의 고운 입김은 이웃 여인의 오므린 푸른 입술을 부끄럽게 하고, 뽕나무 숲의 천박한 노래는 鄆에 사는 초나라 사람의 白雪曲을 이어가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有司는 장중이 小官이기 때문에, 오랑캐 사신과 교류한 것은 不當하다고 하여 탄핵하였다. 상소문을 올리니, 神宗이 좌우 신하들에게 “‘푸른 입술(靑脣)’이 어떤 緣故가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모두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神宗이 趙元考에게 물으니, 조원로가 “불경스러운 말이라 감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神宗이 재차 물으니, 조원로가 《태평광기》를 외우며 대답했다. “어떤 부인이 보니, 이웃 남자가 자신의 부인이 불을 지피는 것을 보고는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불을 지피기 위해 붉은 입술을 움직이고, 땀감을 더 넣기 위해 옥같은 팔을 기울이네. 연기 속의 얼굴을 바라보니, 마치 안개 속의 꽃과 같네.’(이를 본)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찌 (이웃 남자)를 본받지 않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을 지피면, 나도 그를 본받겠소.’ 그리고 남편은 시를 지었습니다. ‘불을 지피기 위해 푸른 입술을 움직이고, 땀감을 더 넣기 위해 검은 팔 기울이네. 연기 속의 얼굴을 바라보니, 마치 귀신과 같네.’” 조원로는 이처럼 기억력이 뛰어나, 비록 기이한 소설이라도 열람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元豐中, 高麗使朴寅亮至明州, 象山尉張中以詩送之, 寅亮答詩序有“花面艷吹, 愧鄰婦靑脣之斂, 桑間陋曲, 續鄆人白雪之音”之語. 有司劾, 中小官, 不當外交夷使. 奏上, 神宗顧左右: “靑脣何事?”皆不能對. 乃以問趙元考, 元老奏: “不經之語, 不敢以聞.”神宗再諭之, 元老誦《太平廣記》云: “有觀鄰夫見其婦吹火, 贈詩云: ‘吹火朱脣動, 添薪玉腕斜. 遙看煙裏面, 恰似霧中花.’其婦告其夫曰: ‘君豈不能學也?’夫曰: ‘汝當吹火, 吾亦效之.’夫乃爲詩云: ‘吹火靑脣動, 添薪墨腕斜. 遙看煙裏面, 恰似鳩槃茶.’”元老之強記如此, 雖怪僻小說, 無不該覽.)<sup>11)</sup>

이상 내용은 宋 神宗 元豐 3년(1080)에 있었던 일이다. 그 관련 내용이 《高麗

寧 4년에 송에 들어와 다음 해 6월 귀국하면서 직접 《태평광기》를 가지고 귀국했다고 주장하며 《태평광기》 한국 전래의 상한 시기를 熙寧 5년(1072)으로 간주함으로써 《태평광기》가 宋 神宗 熙寧 5년(1072)에서 元豐 3년(1080) 사이에 한국으로 전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黃淇江 《朝鮮王朝小說研究》(서울, 檀大出版社, 1978), 38쪽 참조; 程毅中 앞의 책, 15쪽 참조; 趙維國 〈太平廣記傳入韓國時間考〉: 《中國典籍與文化》 2002년 제2기, 34-41쪽 참조.

11) 王闢之 《澠水燕談錄》 권9 〈雜錄〉(北京, 中華書局, 1981), 118쪽.

史》 권95 〈朴寅亮傳〉에도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文宗) 34년, (박인량은) 戶部尙書 柳洪과 사신이 되어 宋으로 가다가 錢塘江에 이르니, 태풍을 만나 배가 전복될 뻔하였다. (三十四年, 與戶部尙書柳洪, 奉使如宋, 至浙江, 遇颶風, 幾覆舟.)<sup>12)</sup>

高麗 文宗 34년 朴寅亮(?-1096)은 戶部尙書 柳洪과 使臣의 신분으로 宋에 방문한다. 上記한 《고려사》의 기록이 바로 《승수연담록》에 기록된 宋 神宗 元豐 3년과 동일한 1080년 때의 일이다. 박인량이 明州에서 象山尉官 張中과 나눈 詩에서 “푸른 입술”의 뜻인 “靑脣”을 인용하였는데, 小官인 장중이 박인량과 교류했다는 것에 대해 神宗에게 상소문을 올렸고, 신중이 “靑脣”에 대해 묻자 趙元考<sup>13)</sup>가《태평광기》를 외워 대답하였다. 즉, 박인량이 인용한 “靑脣”典故가 《태평광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靑脣”이 《태평광기》 권251 〈鄰夫〉에 기재되어 있다.<sup>14)</sup>

### Ⅲ. 기존 학설에 대한 재고찰

필자는 이상의 세 가지 학설 특히, 기존의 정설인 “1080년 이전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승수연담록》의 내용에 의거하면, 박인량은 “靑脣”을 인용하였다. 상기하였듯이 “靑脣”은 《태평광기》 권251 〈린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린부〉는 본래 《笑林》의 작

12) 金宗瑞 鄭麟趾等《高麗史》 권95 〈朴寅亮傳〉(서울, 太學社, 1972), 제8책 148쪽.

13) 조유국선생은 여러 문헌기록을 근거로 趙元老의 이름이 실제 趙元考임을 입증하였다. 趙維國 〈“趙元老”實爲“趙元考”——灑水燕談錄刊刻訛誤一例辨正〉; 《古籍整理研究學刊》 2002년 제4기, 76-77쪽 참조.

14) 李昉 等《太平廣記》 권251 〈鄰夫〉: 「有觀鄰人夫婦相諧和者, 夫自外歸, 見婦吹火, 乃贈詩曰: “吹火朱唇動, 添薪玉腕斜. 遙看煙裏面, 大似霧中花.” 其妻亦候夫歸, 告之曰: “每見鄰人夫婦, 極甚多情. 適來夫見婦吹火, 作詩詠之. 君豈不能學也?” 夫曰: “彼詩道何語?” 乃誦之. 夫曰: “君當吹火, 爲別製之.” 妻亦效吹, 乃爲詩曰: “吹火靑唇動, 添薪黑腕斜. 遙看煙裏面, 恰似鳩盤茶.”」(北京, 中華書局, 1961), 제6책 1952쪽.

품이다.<sup>15)</sup>

필자는 《승수연담록》의 내용과 〈린부〉가 《소림》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통해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박인량이 1080년 이전에 한국으로 유입된 《태평광기》를 보고 “靑脣”을 인용했다는 가능성이다. 이는 현재의 정설이다. 둘째는, 박인량이 《태평광기》가 아닌, 일찍이 한국으로 전래된 《소림》을 보고 “靑脣”을 인용했다는 가능성이다.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 조유국선생은 「晚唐 이래로 戰亂이 근 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정권이 빈번히 교체되어 왔다. 통치자들은 정치적 이익 추구에 바쁜 나머지 문화, 典籍 관리할 시간이 없어 당나라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던 藏書들은 대량 훼손되고 거의 남아 있지 않다. …… 《고려사》통계에 의하면, 희녕 5년(1072) 이전에 고려에 들어와 무역을 했던 宋商은 극히 미미했다. 이를 통해 희녕 5년 이전에 상인들이 서적을 통한 私利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sup>라고 말하며 《소림》이 한국으로 유입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晚唐 이래로 정권이 빈번히 교체되어 당나라의 수많은 문헌들이 훼손되어 대부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송시기 《태평어람》과 《태평광기》 두 문헌에서는 물론, 《新唐書》 권59 〈藝文三〉에서도 「邯鄲淳《笑林》三卷 …… 何自然《笑林》三卷」<sup>17)</sup>과 같이 《소림》이 북송시기에 아직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희녕 5년(1072) 이전 고려에 들어와 무역을 했던 宋商은 극히 미미했다고는 하나, 역사문헌에 의하면 송나라가 건립된 建隆元年(960)부터 박인량이 “靑脣”을 인용한 원풍 3년(1080)까지 120년 동안 송 使節團의 고려 방문 횟수는

15) 《소림》 書名은 《태평광기》 談愷刻本에 《笑語》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誤記이다. 沈與文野竹齋鈔本, 孫潛校宋本, 韓國所藏 《태평광기상절》 등에서 모두 《소어》가 아닌 《소림》으로 기재되어 있다.

16) 趙維國 〈太平廣記傳入韓國時間考〉: 「晚唐以來, 亂離長達近百年, 政權更迭頻繁, 統治者忙於政治利益的追逐, 根本沒有時間管理文化典籍, 唐人所貯藏的大量藏書毀壞殆盡 …… 根據《高麗史》統計, 熙寧五年以前宋朝商人到高麗經商的人微乎其微, 可見熙寧五年以前商人以書籍牟利的可能性幾乎沒有.」(《中國典籍與文化》 2002년 제2기, 36쪽, 40쪽)

17) 歐陽修 宋祁 等 《新唐書》(北京, 中華書局, 1975), 1539쪽과 1543쪽. 《소림》은 본래 三國時代 邯鄲淳이 3권으로 지은 중국 최초의 笑話集이었으나, 이후 後人들이 증보 및 편집하여 작가가 다른 4종의 《소림》 書名을 古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신당서》에서는 한단순과 何自然의 《소림》이 기재되어 있다.



13회였고, 고려 사절단의 송 방문 횟수는 28회였다. 양국 사절단 왕래 이외에도 민營 상인들의 교류가 더욱 빈번했는데, 송 眞宗 大中 祥符 5년(1012)부터 원풍 3년(1080)까지 68년 동안 宋商團이 고려에 들어간 회수는 65회로 참여인원이 1,900여 명이나 되었다.<sup>18)</sup> 이러한 宋麗의 빈번한 교류 속에서 《소림》 문헌이 한국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가능성 또한 立證되지 않는다. 물론 송과 고려 교류 속에서 《태평광기》가 유입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박인량이 보았다는 것이 《태평광기》라고 결코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박인량이 한국으로 전래된 《태평광기》를 보았다면, 원풍 3년(1080) 이후 즉, 고려 문종 34년 이후의 문헌에서 《태평광기》 서명이나 인용된 내용이 종종 보일 수 있는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태평광기》 관련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고찰하고자 한다.

반면, 趙元考는 《태평광기》를 외위 “靑脣”典故를 왕에게 고했다. 조원고는 「외우지 않는 책이 없다하여 사람들에게 著脚書樓<sup>19)</sup>라고 불렀고, 일찍이 仁宗 嘉祐 4년(1059)에는 大理評事로 館閣編校書籍官을 담당했기 때문에, 《태평광기》를 어렵지 않게 읽고 외웠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1095년 이전설의 근간이 되는 《대각국사외집》에 기록된 《태평광기》 내용이다. 변진은 의천에게 보내는 서신 末尾에 「듣자하니, 海東(고려)에 《태평광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받아볼 수 있을 런지요?」<sup>20)</sup> 라고 물었다. 과연 변진이 고려에 《태평광기》가 있다고 누구에게서 들었을까? 만약, 승려 신분인 변진이 《태평광기》가 고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당시의 큰 이슈이므로 적어도 다른 몇몇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다른 문헌에서 그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김정우선생은 《대각국사외집》에 기록된 《원종문류》 문헌과 서신 내용을 근

18) 楊渭生 《宋麗關係史研究》(杭州, 杭州大學出版社, 1997), 《宋麗使節表》(190-218쪽)와 《宋商至高麗活動一覽表》(269-279쪽) 참조.

19) 朱弁 《曲洧舊聞》卷二〈趙元考恭謹神宗嘉歎〉: 「趙元考彥若, 周翰之子也. 無書不記, 世謂著脚書樓.」(北京, 中華書局, 2002), 104쪽. 〈趙元考恭謹神宗嘉歎〉에도 《승수연담록》에 나오는 조원고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20) 義天 〈大宋沙門辯眞書第二〉: 「聞海東有《太平廣記》, 可得觀光否?」(《高麗大覺國師文集》 권5).

거로 변진의 서신이 1095년에 작성했다고 유추하였으나, 국내에서는 1096에서 1103년경에 작성했다고 추정하고 있다.<sup>21)</sup> 의천이 1101년에 死去했으니, 어쩌면 변진은 의천이 사거한지 모른 상황에서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원종문류》의 편찬시기에서 유래된다.<sup>22)</sup> 《원종문류》는 의천이 編撰한 法典 중의 하나인데, 김선생은 편찬시기를 1083년이라고 하였으나, 한국학계에서는 그 편찬시기를 1083년 이전설과 1092년 혹은 1093년설로 나누고 있다.<sup>23)</sup>

만약 변진의 서신이 1100년경에 작성되었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변진은 어쩌면 《승수연담록》을 읽었거나 혹은, 읽었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태평광기》가 고려에 있다고 추측하였을지 모른다. 《승수연담록》은 紹聖 2년(1095) 正月에 편찬되었으므로 변진이 박인량의 전고를 읽거나 듣고 얼마 되지 않아 의천에게 서신을 했을 수 있다. 이처럼 《태평광기》 한국 전래시기의 기존 학설 관련하여 여러 가능성이 유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문헌기록을 통하여 새롭게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존하는 역사기록 중,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태평광기》 관련 첫 기록은 바로 고려 毅宗 8년(1154) 黃文通이 撰한 《尹誦墓誌銘》이다.

癸丑年 가을 8월, 王命을 받들어 古詞 300首를 撰集하여 《唐宋樂章》라 이름 지었고, 또한 大金 皇統 6년에는 《太平廣記撮要詩》 100首를 편찬하여 表文과 함께 왕께 올렸다.(癸丑(高麗仁宗11年, 1133)秋八月, 奉王旨, 撰集古詞三百首, 名《唐宋樂章》一部, 又於大金皇統六年(高麗仁宗24年, 1146), 纂《大(太)平廣記撮要詩》一百首, 隨表進呈.)<sup>24)</sup>

21) 吳龍燮 〈新編諸宗教藏總錄의 續藏 受容性〉; 《서지학연구》 1997년 제13집, 259쪽 참조; 朴鎔辰 〈11~12세기 圓宗文類의 유통과 동아시아 불교교류〉; 《한국중세사연구》 2008년 第25號, 255쪽 참조.

22) 변진의 서신에는 《원종문류》 이외에도 《夾注金剛經》, 《斷疑金剛經》, 《金剛經集解》, 《教藏總錄》, 《唯識論單科》 등의 문헌도 적혀 있다. 전자의 세 문헌 관련내용은 알 수 없으나, 후자의 《教藏總錄》과 《唯識論單科》 두 문헌은 의천이 저술한 서적으로 본래 原名이 각각 《新編諸宗教藏總錄》과 《成唯識論單科》이다. 이 두 문헌의 편찬 시기는 각각 고려 宣宗 7년(1090)과 獻宗 2년(1094) 경에 편찬되었다.

23) 朴鎔辰 〈大覺國師義天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년, 82-84쪽 참조.

24) 金長煥 朴在淵 李來宗〈太平廣記詳節研究〉; 《中國語文學論集》 2004년 제29호, 412

尹誦(1063-1154)는 고려 전기 文臣으로 仁宗24년(1146), 84세 高齡의 나이에 《太平廣記撮要詩》 100首를 편찬하여 왕에게 進上하였다. 비록 이 활요시는 현재 失傳되어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詩集名을 통해서 《태평광기》에 수록되어 있는 詩文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태평광기》가 고려 인종 24년(1146) 이전에 한국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문헌기록이다. 그 이후로 《태평광기》 서명과 관련내용이 고려 문헌에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고려 중후기 문신 李奎報(1168-1241)의 詩文集 《東國李相國集》 권4에 수록된 〈開元天寶詠史詩〉에서 《태평광기》 서명이 보인다.

또 《태평광기》에서 말하길 “작은 殿亭안에 버들나무와 살구나무의 싹이 틀 때, 왕은 羯鼓를 가져와 마음껏 치면서 그 曲名을 《春光好》라 하였다. (왕이) 버들나무와 살구나무의 싹이 이미 튼 모습을 보고 가리키고는 웃으며 말했다. ‘이러한 일이 나를 하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가능한가?’라고 하였다.”(又《廣記》曰：小殿亭內，柳杏將吐，上取鼓縱擊，曲名《春光好》。顧柳杏皆已發拆，指而笑曰：此一事，不喚我作天公可乎?)<sup>25)</sup>

이상 내용은 《태평광기》 권205 〈玄宗〉에서 인용되었다. 또한 《동국이상국집》 권18 古律詩의 割註 부분에서도 《태평광기》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태평광기》에서 말하길 “韓志和는 穆宗때 나무를 조각하여 鸞과 鶴 형상 만들기를 좋아하였다. 왕이 궁전 앞에 천 잎사귀가 달린 모란을 심었는데, 꽃이 피기 시작할 때가 되자 꽃 한 송이에 잎사귀가 천 개가 되었다. 왕이 노랗고 하얀 나비만여 마리가 꽃 사이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늘 보며, 그물을 쳐서 수백 마리를 잡게 하고, 후궁들에게 나비를 쫓아다니도록 하는 것을 즐겨하였다. 새벽이 되어 잡은 것들을 보니, 모두 금과 옥이었다. 그 후에 寶廚를 열어 안에 들어 있

쪽에서 재인용. 본 기록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가능 함.

([http://gsm.nricp.go.kr/\\_third/user/viewer/viewer01.jsp?ksmno=3250](http://gsm.nricp.go.kr/_third/user/viewer/viewer01.jsp?ksmno=3250))

25) 《東國李相國集》 권4 〈開元天寶詠史詩·羯鼓〉 고전번역원 사이트 참조.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004&gunchalId=av004&munchelId=01&finId=010&NodeId=&setid=547163&Pos=0&TotalCount=11&searchUrl=ok](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004&gunchalId=av004&munchelId=01&finId=010&NodeId=&setid=547163&Pos=0&TotalCount=11&searchUrl=ok))

는 금 부스러기와 옥, 돈을 보니, 어떠한 것들은 나비로 변화하려고 하자 궁중 사 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太平廣記》云：韓志和，穆宗朝，喜雕木作鸞鶴之狀。上於殿前種千葉牡丹，及花始開，一朵千葉。每觀黃白蚊蝶萬數，飛集花間，上令張網得數百，縱嬪御追從爲樂。平明視之，皆金玉也。後開寶廚，觀金屑玉錢之內，有將化爲蝶者，宮中始覺焉。)26)

이상 내용은 《태평광기》 권227 〈韓志和〉에서 인용되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고려 明宗 24년(1194)과 高宗 23년(1236)경에 지은 것이다.27) 주목할 점은, 이규보의 이름이 《한림별곡》에 기재되어 있는데,28) 아마도 《한림별곡》에 기재되어 있는 文人들은 비교적 쉽게 《태평광기》를 열람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이외에도 《태평광기》는 1200년경에 편찬된 《樊川文集夾注》, 《夾注名賢十抄詩》에서 다수 인용되었다.29)

#### IV. 맺음말

본고는 현존하는 역사 문헌 기록과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태평광기》 한국 전래시기를 새롭게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태평광기》 한국 전래시기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소 다르다. 현재 국내외 학자들은 《승수연담록》 권9 〈잡록〉의 내용에 의

26) 《東國李相國集》卷18 〈古律詩〉 고전번역원 사이트 참조.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004&gunchald=av018&munchelId=01&finId=035&NodeId=&setid=545718&Pos=0&TotalCount=2424&searchUrl=ok](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004&gunchald=av018&munchelId=01&finId=035&NodeId=&setid=545718&Pos=0&TotalCount=2424&searchUrl=ok))

27) 金長煥 〈太平廣記의 時代의 意味 — 그 轉移와 收容의 研究史의 成果를 中心으로〉: 《中國語文學論集》 2012년 제75호, 496쪽 참조.

28) 《한림별곡》에 “李正言李奎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正言은 고려시대 中書門下省의 官職으로 각각 左正言, 右正言으로 칭한다. 한림 유자들이 《한림별곡》을 편찬할 당시 이규보는 우정언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림별곡》에서 “李正言”이라 칭하였다.

29) 金程宇 〈韓國唐詩選本十抄詩所存唐人佚詩輯考〉: 《潘陽師範學院學報》 2002년 제5기; 芳村弘道 沈慶昊 譯〈朝鮮本夾注名賢十抄詩의 基礎性考察〉: 《漢字漢文研究》 2005년 제12기 참조.

거하여 《태평광기》가 원풍 3년(1080) 이전에 한국으로 전래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는 현재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확한 문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태평광기》 전래시기를 원풍 3년(1080) 이전으로 확정할 수 없다. 또한, 본고에서 유추하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다 확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내의 관련 역사 문헌 기록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지만, 한국 현존하는 역사 기록 중, 《태평광기》가 처음으로 보이는 《운포묘지명》에서 「於大金皇統六年, 纂《太平廣記撮要詩》一百首」의 기록은 《태평광기》가 大金皇統六年(1146) 이전에는 한국으로 유입되었음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본고의 고찰을 통하여 《태평광기》 한국 전래시기에 대한 국내외 학자의 관심이 높아져 새롭게 진일보적이고 전면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고대 한중 양국 문헌 교류사 등 관련연구에 一助가 되길 바란다.

### 【參考文獻】

- 李昉 等《太平廣記》北京, 中華書局, 1961.  
 歐陽修 宋祁 等《新唐書》北京, 中華書局, 1975.  
 王闢之《澠水燕談錄》北京, 中華書局, 1981.  
 朱弁《曲洧舊聞》北京, 中華書局, 2002.  
 楊渭生《宋麗關係史研究》杭州, 杭州大學出版社, 1997.  
 程毅中《太平廣記》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99.  
 張國風《太平廣記版本考述》北京, 中華書局, 2004.  
 金程宇《域外漢籍叢考》北京, 中華書局, 2007.  
 義天編, 黃純艷點校《高麗大覺國師文集》蘭州, 甘肅人民出版社, 2007.  
 金宗瑞 鄭麟趾等 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 譯《譯注高麗史》서울, 太學社, 1972.  
 金鉉龍《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以〈太平廣記〉的影響爲主》서울, 一志社, 1976.  
 閔寬東《中國古典小說在韓國之傳播》上海, 學林出版社, 1998.  
 黃滄江《朝鮮王朝小說研究》서울, 檀大出版社, 1978.  
 芳村弘道 沈慶昊 譯〈朝鮮本來注名賢十抄詩的基礎性考察〉;《漢字漢文研究》2005, 12기.  
 金程宇〈韓國唐詩選本十抄詩所存唐人佚詩輯考〉;《瀋陽師範學院學報》2002, 5기.  
 趙維國〈太平廣記傳入韓國時間考〉;《中國典籍與文化》2002, 2기.

- \_\_\_\_\_ 〈“趙元老”實爲“趙元考”——澠水燕談錄刊刻訛誤一例辨正〉:《古籍整理研究學刊》2002, 4기.
- 李在秀 〈韓國小說 發達 段階에 있어서 中國小說의 影響〉:《慶北大學校論文集》1956, 1집.
- 金一根 〈太平廣記諺解〉:《國語國文學會》1957, 17호.
- 許興植 〈義天的圓宗文類和廓心的集解〉:《書志學報》1991, 5집.
- 吳龍燮 〈新編諸宗教藏總錄의 續藏 受容性〉:《서지학연구》1997, 13집.
- 朴鎔辰 〈11~12세기 圓宗文類의 유통과 동아시아 불교교류〉:《한국중세사연구》2008, 25호.
- 金長煥 朴在淵 李來宗 〈太平廣記詳節研究〉,《中國語文學論集》第29號, 2004.
- \_\_\_\_\_ 〈太平廣記의 時代의 意味 —— 그 轉移와 收容의 研究史의 成果를 中心으로〉:《中國語文學論集》第75號, 2012.
- 朴鎔辰 〈大覺國師義天研究〉, 國民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4.
-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 【中文提要】

《太平廣記》是宋李昉等於太平興國三年(978)奉敕編纂的一部大型古代小說總集。編纂者從漢至宋初之間的四百多餘文獻中選取菁英的典故而編纂爲500卷(另有目錄義10卷, 總有510卷), 因此後人稱之爲“小說家之淵海也。”該書不僅影響到中國的後世文學, 而且傳入韓國之後, 其素材和體裁對韓國文學產生了巨大影響。尤其是隨着人們的需求, 朝鮮時代不僅刊行了《太平廣記》選本的《太平廣記詳節》, 而且還把該書的不少作品翻譯成韓文而編撰了《太平廣記諺解本》, 這就意味着該書在韓國有極大的影響力。但是由於目前對《太平廣記》傳入韓國的時期沒有明確的歷史記載, 就導致了學者們對此有不同意見。本文對至今學者們的觀點進行介紹, 根據歷史記載和與之相關的可能性對其傳入時期進一步進行考察, 並揭示正確的傳入時期, 爲相關研究者提供參考。

**【主題語】**

中國文獻, 韓國, 傳來時期, 《太平廣記》, 《澗水燕談錄》, 《太平廣記撮要詩》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